

오차대에서의 반년

K2690002

경북대학교 이지원

제가 교환학생을 결심한 이유는 일본에서 직접 생활하며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전공과 일본어를 더욱 깊이 배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으로 오랜 기간 해외에서 생활하게 되어 걱정도 있었지만, 그 걱정보다 훨씬 많은 만남과 배움을 얻을 수 있었던 소중한 반년이었습니다.

교환학생 생활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사람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함께 교환학생으로 온 한국인 친구들은 낯선 환경 속에서 서로 의지하며 지낼 수 있었던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또한 일본인 학생들과 여러 나라에서 온 유학생들을 만나 다양한 문화와 가치관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수업을 듣고, 식사를 하고, 여행을 다니며 보낸 평범한 일상은 지금도 가장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국적과 문화는 달라도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충분히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도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휴일에는 친구들과 일본의 여러 지역을 여행하기도 했습니다. 도쿄뿐만 아니라 지역마다 서로 다른 풍경과 문화가 있었고, 직접 방문하면서 책이나 인터넷만으로는 알 수 없는 일본의 매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음식을 먹고, 거리를 걸으며 현지의 분위기를 경험했던 시간들은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일본이라는 나라를 더욱 가까이에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교에서 들은 수업도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정치학과 국제관계학 등 전공 수업은 한국에서 들었던 수업과는 접근 방식이 달랐습니다. 하나의 주제를 여러 관점에서 바라보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며 토론하는 수업이 많았습니다. 정답을 찾는 것보다 다양한 생각을 존중하며 토론을 통해 함께 배우는 과정이 매우 인상 깊었고, 저 역시 사회와 국제 문제를 이전보다 더 넓은 시각에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같은 전공이라도 국가와 교육 환경에 따라 학문을 바라보는 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직접 경험한 것은 교환학생이었기에 얻을 수 있었던 소중한 배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 교수님들께서 유학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따뜻한 관심을 가져 주셨던 것도 잊을 수 없습니다. 수업 내용뿐만 아니라 학교생활과 학업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조언해 주셨고, 궁금한 점이 있을 때마다 친절하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낯선 환경에서도 안심하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으며, 새로운 분야에도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배려는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비록 반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번 교환학생 생활을 통해 저는 일본어와 전공 지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치관을 이해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저에게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번 교환학생 생활에서 얻은 경험과 배움을 잊지 않고, 어떤 환경에서도 열린 마음으로 배우며 다양한 사람들과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교수님들, 국제교육센터와 국제과 직원분들, 그리고 저를 응원하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